이태리경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2005.12

주OECD대표부

목 차

< 요약 > / 1

Ⅰ. 문제의 제기 / 11

Ⅱ. 이태리의 정치·경제·대외관계 발전과정 / 12

1. 이태리경제의 발전추이 /12
2. 이태리의 정치변천 /14
3. 이태리의 대외정책 /17

Ⅲ. 이태리경제의 문제점 / 21

1. 전통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취약성 /21
2.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의 미약 /32
3.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34
4.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 /36
5. 주요분야 개혁조치의 미흡 /38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 42

< 참고 >

1. 이태리경제의 최근동향 /44
2. 전후 이태리의 정권변천과정 /50
3. 이태리의 사회변천 과정 /56
4. 이태리의 "깨끗한 손"(Mani pulite) /64

< 요 약 >

□ (경제) 이태리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로(Euro)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대국이나, 최근 들어 **"유럽의 진짜 병자(the real sick man of Europe)"**라고 불리울 만큼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

* 저성장과 고실업,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취약성, R&D투자 미흡, 기업지배구조의 낙후,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의 미약,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고령화에 따른 과도한 사회보장지출과 막대한 재정적자, 聯政에서 오는 정치적 비효율과 리더쉽 부재 등 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

o 이태리가 아직까지는 세계6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바, 이는 **틈새품목(niche product)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기인

o 그러나 Globalization과 **고령화**라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존의 중소기업 위주의 경쟁력만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노정

□ (정치) 향후 이태리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이 확립되어야 하나 현 Berlusconi 정부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

* Berlusconi 총리의 Mediaset그룹은 이태리 9위의 재벌(세계 500대기업중 351위)

o **재벌이 정권을 담당**함에 따라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가개혁 아젠다의 후퇴와 정책우선순위의 왜곡이 발생

□ (대외) 한편 이태리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기민당의 장기집권(전후 40여년) 과정에서 **伊·美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는바, 소련 붕괴 이후 이태리가 'medium power'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도 관심대상

o 對EU, 對대서양, 對지중해관계에서 이태리 나름대로의 선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를 일정부분 확보

□ 이태리의 이와같은 경제, 정치, 대외정책이 갖는 **시사점**을 검토

1. 이태리의 정치·경제·대외관계 발전과정

(1) 이태리경제의 발전추이

□ 2차대전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50년간 이태리경제는 일본에 다음가는 고성장을 지속, 농업국가에서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변모

* 저임금, 국제화, 대이주(great migration; 남부→북부, 농촌→도시)를 통해 수출주도 성장의 선순환(virtuous cycle) 시현

* 86년 GDP가 영국을 앞질러 세계5위까지 도약(94년 다시 영국에 추월당함)

□ 이태리경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부진**에 봉착

* 95-2004년 평균성장률(GDP, %) : 이태리 1.6%, 유로평균 2.0%

* 2002년 이후 부진이 더욱 심화 : 성장률 1% 미만, 수출·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

* 2004년 1인당GDP : 28,800불 (유로평균 30,500불에 미달)

□ 이태리를 세계6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은 **틈새시장(niche market)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임

o 이태리 중소기업은 볼트, 타일, 안경테, 기어, 자전거 안장 등 niche product에서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확보

o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은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지구인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에 있음(패션, 가구, 엔지니어링 등)

* 고기술 가내공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조직화되어 대기업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면서 대기업이 갖지 못하는 유연성을 확보

· (예) Como의 실크산업, Verona의 신발, Modena의 타일, Vicenza의 귀금속 등

(2) 이태리의 정치변천

□ 이태리는 발칸반도가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중산층의 지지하에 **기민당 중심 연립정부**가 장기간 집권(전후-92)*

* 83-87년간은 83년 총선시 기민당의 득표율 저하로 연정 파트너의 하나인 사회당의 Craxi가 총리에 취임

o 89.11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기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반공산주의 기치를 내세운 기민당의 지지 기반이 약화

* 반공의 기치만으로는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모두 상실
  · '북부리그'와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출현하여 그 영향력이 증대

o **5당 연정**(80-92 : 기민당, 자유당, 공화당, 좌파민주당, 사회당)으로 좌우파가 망라됨으로써 정권구성이 고착화되고 반대세력의 모든 공격이 차단 가능

- 이에 따라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집권세력 자체가 이익집단화

□ 92.2 밀라노시 사회당 지부 간부 수뢰 적발사건을 시작으로 사법당국이 정치권의 부정부패 수사에 전면 착수("**깨끗한 손; Mani pulite**")

* 기존 정당의 대표들이 모두 축출되는 등 기성 정치권이 사실상 붕괴

□ **비례대표제**가 군소정당의 난립 및 정권고착화를 가져온다는 반성에 따라 93.4 선거제도를 개정

o 종전의 100% 비례대표제를 대폭 수정, 총의석의 75%는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25%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 장점: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정당을 타파하여 전국정당화에 기여
  · 단점: 지역기반 중소정당이 난립하고 다수당이 출현할 수 없게되어 중소정당과의 연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국 안정에 장애

□ 94.3 당시 언론재벌이었던 **Berlusconi**가 전진이태리당(FI)을 창설하고 북부지역 기반의 북부연합(Northern League), 중남부지역 기반의 국민연합(AN)과 연계하여 총선에서 승리, 집권

o Berlusconi는 경험부족, 인내부족, 연정내 이해상충 등으로 집권 7개월만에 실각(94.12)하고, 좌파연합(Olive Tree)이 처음으로 정권교체(우→좌)에 성공

o 그러나 좌파연정은 국민적 지지기반의 취약, 좌파·중도·극좌 등 연정내 참여정당의 성격차이로 2001년 총선에서 Berlusconi에 패배

□ 현재 이태리는 **좌파**(Olive Tree 연합)와 **우파**(자유연합)간에 **국민적 선택**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는 형태가 된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좌우파내 정치적 스펙트럼(극좌파-좌파-중도좌파, 중도우파-우파-극우파), 지역별 지지기반(북부, 남부, 중부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연정구성 능력이 달라지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o 현 시스템으로는 이태리가 안고 있는 산적한 제도개혁과제를 담당할 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태리 정치시스템이 과연 재정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

* 정치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지역기반 중소정당의 난립을 지양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이나, Berlusconi는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선거법 개정 추진중

* 선거법 개정안 내용: 100%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되 ①일정 득표수에 미달시 의석을 배정하지 않는 사표조항과, ②다수당의 과반수 의석 보장조항으로 비례대표제를 보완

(3) 이태리의 대외정책

□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사이에 위치한 이태리의 대외정책은 **대륙지향**과 **해양**(지중해, 대서양)**지향** 정책간에 갈등을 빚어온 바, 크게 세가지 흐름으로 구분

① 현실주의(realism) : 지중해 지배세력(미국, 영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으면서 그에 따른 자주성의 제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초점

* 동구, 발칸반도의 공산화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인이었던 과거에는 공산화에 대처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축이었으나, 소련 붕괴이후에는 부족한 원유자원확보, 지중해를 통한 대량난민 유입 위험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발칸반도, 중동·북아프리카 아랍국가와의 관계 등이 주 관심사항

② 배타주의(particularism) : 국익을 위한 제국주의적 독자노선 추구

* 유럽의 후진국 이태리의 상황탈피를 위해 아프리카 식민지건설 추구(뭇솔리니 등)

· 파시즘 몰락 이후에는 에너지원을 대부분 아랍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아랍권과 서방세계간의 조정자 역할 자임

③ 유럽주의(Europeanism)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는 노선 추구

* 영·독·불에 비해 EU에서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낮을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유럽국가보다 미국과의 연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충

o 이태리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3개노선의 충돌과 조율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아랍권과의 지중해 연계를 꾀하면서,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간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선에서 국민적 컨센서스가 도출

2. 이태리경제의 문제점

□ 이태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1)Globalization과 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등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2)정치적 리더쉽 부재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경쟁력 저하와 심각한 경기침체에 봉착

(1) 전통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취약성

□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이 이태리를 세계6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Globalization이 확산되면서 ①**중국・동구의 시장잠식**, ②대기업의 취약으로 인한 **R&D 능력의 미흡**, ③중소가족기업 구조에서 오는 **지배구조의 낙후와 투명성 부족**이 이태리경제의 취약성으로 작용

o 중국, 동구 등 신흥 저임금국의 급부상으로 그동안 주력업종이던 섬유의류・신발・가구 등 전통분야에서 세계시장을 크게 잠식당함

* 과거 리라貨의 주기적인 평가절하로 전통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했으나, 유로화 도입 이후 환율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불가능

o 기업들의 대규모 R&D 투자능력이 부족하고 신기술 및 혁신의 도입이 미흡

* 이태리의 R&D 투자지출의 대GDP 비율은 1.1%로 경쟁국 독일(2.5%), 프랑스(2.3%)뿐 아니라 OECD평균(2.3%)에도 크게 미달(2003년)

o 가족중심 기업지배구조로 시장감시기능이 미흡하고 투명성이 부족

* 대표적 기업인 Parmalat사는 가족중심의 폐쇄적 경영과 외부 회계감사 기능 미약으로 2003.12월 140억유로에 달하는 부정회계사건 발생

(2)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의 미약

□ 과도한 상품시장규제, 공공부문의 과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 등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압력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지 못하고 경쟁력 저하를 초래

* OECD가 국가통제 정도, 기업활동 규제, 무역·투자장벽 등을 종합 감안하여 산출한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의하면 이태리는 OECD 30개국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영국 2위, 독일 17위, 프랑스 23위)

□ 특히, **서비스분야의 경쟁이 미약**하여 비용절감 및 혁신 노력이 없고, 결국 높은 서비스가격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

* 전력시장의 경쟁도입이 미흡하여 전기요금이 EU내 경쟁국가에 비해 35-40% 높고 전기 생산능력 확충도 한계에 직면

* 금융부문의 진입규제, 업무감독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은행수수료가 유럽 최고수준

* 대형소매점에 대한 인허가(진입규제), 원가이하 판매금지 규제 등

(3)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 이태리는 부유한 **북부**(인구:37백만)와 가난한 **남부**(20백만) 지역으로 양분화되어 국가전체의 동질성 확보에 어려움

□ 지역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남부지역 발전전략이 실패

* 남부지역의 산업화를 위해 철강·화학 등 많은 기업을 설립했으나, 대부분 공기업화되고 부패구조와 결탁["발전없는 현대화(modernization without developement)"]

(4)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와 주요분야 개혁조치의 미흡

□ 2001.5월 재집권한 Berlusconi 정부가 **본질적인 경제개혁을 못함**에 따라 이태리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

o Berlusconi는 경제개혁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와 자신이 연루된 불법 혐의(부정회계 등)에서 벗어나는데 치중

* Berlusconi가 소유한 Mediaset그룹의 3개 채널은 집권 후 더욱 번창하여 국영방송 RAI와 함께 TV방송의 90%를 지배

* 부정회계가 중요한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한 처벌받지 않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켜 Berlusconi의 역외계좌를 통한 부정회계 혐의가 기각

□ 이태리의 **연금지출**은 유럽 최고수준인 GDP의 15.7%(이중 1/3은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인 바, 2004년 연금제도를 개혁

* 조기퇴직 억제를 위하여 2008년부터 남자 65세, 여자 60세가 되거나 40년이상 기여금을 납부해야 완전연금(full pens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그러나 연금의 지속가능성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근본적 개혁이 아닌 **대증적 개혁**으로 임시처방에 그쳤다는 평가

□ 2003년 비정규직 채용채널을 다양화하고 고용보호조항을 일부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으나, 개혁이 아직 미흡

*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조항 추가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고, 여성의 고용율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이 긴요

3. 우리에 대한 시사점

(1) **경제정책** 분야에서 이태리는 저성장과 고실업, R&D 미흡, 기업지배구조의 낙후, 과도한 정부규제, 지역간 불균형,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과 막대한 재정적자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niche market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그 중심역할을 담당

o 우리가 추진중인 산업클러스터 전략에 이태리 중소기업의 발전과정 벤치마킹 필요

(2) **정치체제** 면에서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

o Berlusconi 정권의 행태에 비추어 **재벌이 정권을 담당**하게 될 경우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

o 우리의 경우 **지역주의 타파**가 정치개혁의 주요목표가 될 수 있는 바, 그 수단으로서 어떠한 방식을 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국정당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군소정당의 난립과 그로 인한 정국안정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

(3) **대외정책**에 있어 이태리는 전후회복과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대미의존**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음

o 소련의 붕괴 이후 이태리가 **지중해, 유럽, 대서양 간의 연계**를 적절히 조합·선택해 옴으로써 medium power로서 그 나름대로의 위상을 찾아 온 과정에 주목할 필요

o 이는 동북아 지역내의 조정역할, 한중일 FTA 등 동북아 통합의 진전, 한미관계의 보다 균형적인 발전 등을 지향하는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에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목차로)

< 본 문 >

Ⅰ. 문제의 제기

□ (경제) 이태리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로(Euro)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대국이나, 최근 들어 **"유럽의 진짜 병자(the real sick man of Europe)"**라고 불리울 만큼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

* 저성장과 고실업,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취약성, R&D투자 미흡, 기업지배구조의 낙후,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의 미약,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고령화에 따른 과도한 사회보장지출과 막대한 재정적자, 聯政에서 오는 정치적 비효율과 리더쉽 부재 등 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

o 이태리가 아직까지는 세계6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바, 이는 **틈새품목(niche product)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기인

o 그러나 Globalization과 **고령화**라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존의 중소기업 위주의 경쟁력만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노정

□ (정치) 향후 이태리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이 확립되어야 하나 현 Berlusconi 정부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

* Berlusconi 총리의 Mediaset그룹은 이태리 9위의 재벌(세계 500대기업중 351위)

o **재벌이 정권을 담당**함에 따라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가개혁 아젠다의 후퇴와 정책우선순위의 왜곡이 발생

□ (대외) 한편 이태리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기민당의 장기집권(전후 40여년) 과정에서 **伊·美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는바, 소련 붕괴 이후 이태리가 'medium power'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도 관심대상

o 對EU, 對대서양, 對지중해관계에서 이태리 나름대로의 선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를 일정부분 확보

□ 이태리의 이와같은 경제, 정치, 대외정책이 갖는 **시사점**을 검토
(☞ 목차로)

Ⅱ. 이태리의 정치・경제・대외관계 발전과정

1. 이태리경제의 발전추이

□ 2차대전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50년간 이태리경제는 일본에 다음가는 고성장을 지속, 농업국가에서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변모

* 전후 "번영의 30년(trente glorieuses: 국제무역 및 경제성장의 황금기)"은 이태리에 경제기적을 가져옴

o 저임금, 국제화, 대이주(great migration; 남부→북부, 농촌→도시)를 통해 **수출주도 성장**의 선순환(virtuous cycle) 시현

* 86년 GDP가 영국을 앞질러 세계5위까지 도약(94년 다시 영국에 추월당함)

<G7국가의 실질 1인당GDP 증가율(%) 비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1950-1973	2.4	8.0	5.0	2.4	4.0	5.0
1973-1996	1.5	2.5	1.2	1.6	1.5	2.1

* **이태리경제의 단계적 발전과정**

・경제재건기(1946-52): 산업화 착수(철강・에너지 등 중공업 육성), 친유럽 정책을 통한 성장, 미국 경영기법의 선택적 도입 등 전략 수립

・경제기적기(1953-63): 기업가정신 확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소수대기업의 포디즘적 경영, 남부 노동인력의 북부 유입, 57년 EEC 출범후 수출의 비약적 증가 등을 통한 고도성장 시현

・분배투쟁기(1964-74): 노동운동(69년 Hot Autumn)으로 임금이 '독립변수'화 되기 시작,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로 재정적자 전환

· 경제불안정기(1975-83):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임금-물가 연동제, 81년 중앙은행 독립 이후 인플레는 억제되었으나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

· 경제회복기(1984-92): 대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중소기업은 더욱 번창, 수출이 연평균 5% 성장하여 경제성장을 견인, 재정적자는 확대

· 유럽침체기(1993-98): 영미국가와 달리 유럽대륙국가들은 저성장 지속, 특히 이태리는 리라화 평가절하에 불구 더욱 낮은 성장률 시현

□ 이태리경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부진**에 봉착

* 95-2004년 평균성장률(GDP, %) : 이태리 1.6%, 유로평균 2.0%

* 2002년 이후 부진이 더욱 심화 : 성장률 1% 미만, 수출·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

* 2004년 1인당 GDP : 28,800불 (유로평균 30,500불에 미달)

o **실업율**은 2004년 8.0%로 프랑스(9.7%), 독일(9.6%), 스페인(10.9%)보다는 나으나, 지역별·계층별 격차가 심화(남부 14.8%, 특히 남부 청년실업율 49.1%)

o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복지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도 증가

* 2004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상회(3.2%)

o 물가상승, 임금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계속 하락**

- 섬유·의류·가죽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이 중국, 동구권 등 저가제품과의 경쟁심화로 2001년 이후 수출량 급감

* 이태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91년 5.1% → 2004년 4.1%

o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2005년) 결과 53위로 유로지역 최하위

* 정부효율성 58위, 재정 60위, 기업관련법 49위, 기업효율성 53위 등

(☞ 목차로)

2. 이태리의 정치변천

□ 2차대전 이후 이태리 정치구도는 제1당인 **기민당**(DC)이 제3당인 사회당(PSI) 및 기타 중소정당과 제휴하여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공산당(PCI)이 제2당으로서 야당세력을 주도

o 발칸반도가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중산층의 지지하에 **기민당 중심 연립정부**가 장기간 집권(전후-92)*

* 83-87년간은 83년 총선시 기민당의 득표율 저하로 연정 파트너의 하나인 사회당의 Craxi가 총리에 취임

* 기민당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①반공주의 외에 ②기업에 이권을 주는 대신 정치자금과 지원을 받는 기민당·기업의 상호의존관계인 광범위한 후견주의(clientelism) 네트워크, ③카톨릭교회의 지지 등이 크게 작용

o 공산당은 소련과의 연계로 기민당의 대안이 될 수 없어, 정당간 경쟁을 통한 **정부교체의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

* 이태리 공산당은 체코·헝가리사태와 소련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스스로 사회민주주의 개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련의 지원에 만족함으로써 이태리내 기반이 무너짐
→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비로소 변화(91.2 좌파민주당으로 개명)

o 기민당 장기집권 체제 하에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심화

□ 89.11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기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반공산주의 기치를 내세운 기민당의 지지 기반이 약화

* 반공의 기치만으로는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모두 상실

· '북부리그'와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출현하여 그 영향력이 증대
· 냉전체제하에서 정권교체 결여로 만연하게 된 부패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도 취약

□ 92.2 밀라노시 사회당 지부 간부 수뢰 적발사건을 시작으로 사법당국이 정치권의 **부정부패 수사**에 전면 착수(“**깨끗한 손; Mani pulite**”)

* 94년말까지 전직총리 4명과 국회의원 440명을 수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 정당의 대표들이 모두 축출되는 등 기성 정치권이 사실상 붕괴

□ 93.4 정치개혁을 위해 상·하원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종전의 100% **비례대표제**를 대폭 수정, 총의석의 75%는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25%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 장점: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정당을 타파하여 전국정당화에 기여

· 단점: 지역기반 중소정당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다수당이 출현할 수 없어 중소정당과의 연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국 안정에 장애

□ 94.1 당시 언론재벌이었던 Silvio Berlusconi는 일반국민들의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으로 새로운 정당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진이태리당(FI; Forza Italia)을 창당

o Berlusconi는 국민연합, 북부리그와 함께 우파 3당연합을 구성, 94.3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94.5월)

* 최초의 재벌 출신 총리가 된 Berlusconi의 승리 요인은, 1)직업정치인이 아닌 newcomer인 점, 2)좌파 집권을 우려하는 기민당 연정 지지자들을 사로잡은 점, 3)기업경영 성공 경험과 국가역할 축소의 강령, 4)자신이 소유한 기업을 최대한 활용(방송, 스포츠, 정치의 결합)한 점 등임

* 한편 Berlusconi의 정치입문은 자신 및 자신소유 기업(방송사 등)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혹도 제기

<방송,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사례>

· Berlusconi는 프로축구단 AC Milan의 구단주가 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진 바, 거액을 투자하여 동 구단을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스포츠를 광고수입을 올리는 이벤트로 전환시켜 스포츠중계가 국영방송 RAI에서 자신 소유 TV방송사로 넘어오게 함

· Berlusconi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스포츠 관련 용어를 정치적 동원에 활용하는 전략 사용

- 자신이 창당한 정당 이름 : Forza Italia("Go Italy"의 의미)
- Forza Italia 출신 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이름 : azzurri
- 정당원들 간에 사용하는 언어 : score a goal, take the field 등

* 이태리국민의 1인당지출에서 여가활동 지출분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스포츠에 지출 : 스포츠 12,726리라, 극장·콘서트 12,147리라(98년)

□ 그러나 Berlusconi 총리 자신의 부패 연루 혐의로 연합 여당내 분열이 발생하여 94.12월 집권 7개월만에 실각하고, 96년 총선에서 승리한 좌파연합정부가 집권(96.5-2001.5)

* Berlusconi의 실각 요인으로는, 1)정치경험 부재와 정치 템포에 대한 기업가적 조급성, 2)당내 분열 해소능력 부족, 3)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서 오는 검찰과의 갈등 등이 지적

* 96년 이태리 역사상 최초로 중도우파에서 좌파로 정권교체(총리 Prodi)

* 2001.5월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승리, Berlusconi가 재집권

(☞ 목차로)

3. 이태리의 대외정책

□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사이에 위치한 이태리의 대외정책은 **대륙지향**과 **해양**(지중해, 대서양)**지향** 정책간에 갈등을 빚어온 바, 크게 세가지 흐름으로 구분

① 현실주의(realism) : 지중해 지배세력(미국, 영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으면서 그에 따른 자주성의 제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초점

* 동구, 발칸반도의 공산화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인이었던 과거에는 공산화에 대처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축이었으나, 소련 붕괴이후에는 부족한 원유자원확보, 지중해를 통한 대량난민 유입 위험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발칸반도, 중동·북아프리카 아랍국가와의 관계 등이 주 관심사항

② 배타주의(particularism) : 국익을 위한 제국주의적 독자노선 추구

* 유럽의 후진국 이태리의 상황탈피를 위해 아프리카 식민지건설 추구(뭇솔리니 등)

· 파시즘 몰락 이후에는 에너지원을 대부분 아랍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아랍권과 서방세계간의 조정자 역할 자임

③ 유럽주의(Europeanism)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는 노선 추구

* 영·독·불에 비해 EU에서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낮을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유럽국가보다 미국과의 연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충

o 이태리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3개노선의 충돌과 조율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아랍권과의 지중해 연계를 꾀하면서,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간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선에서 국민적 컨센서스가 도출

(1) 이태리와 미국 관계

□ 2차대전후 인접한 발칸반도까지 전부 공산화된 상황에서 이태리 기민당 연합정부는 **반공주의**를 표방하고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o 이태리는 미국으로부터 전쟁피해 회복을 위한 인프라 복구, 산업화 지원 등 경제원조와 안보를 보장받은 대신,

o 정치・군사측면에서 미군 주둔(NATO 남부사령부가 나폴리 소재)과 크루즈 미사일 허용 등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감내

* 이는 이태리 중산층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 기민당 중심의 연정이 50여년간 집권하는 바탕

□ 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미국에 의한 보호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태리는 점차 **'medium power'로서 대외정책의 독자영역**을 모색해 나가기 시작

o EMU 창설멤버로 가입하여 유럽과 확실한 연계를 구축하면서, 불평등한 대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옮겨 나가기 위해 주요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군사력을 강화

* 군대파견 분쟁지역 : 소말리아, 보스니아, 이라크, 모잠비크,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 군사력 강화의 예 : 소형항공모함(가리발디), 차세대 전투기(토네이도) 등 보유

(2) 이태리와 유럽 관계

□ 이태리 유럽주의의 핵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번영을 가져다 주는 '현대화의 수단'이라는 점임

o 이태리의 유럽 선택은 **이태리문제를 유럽과 공유화**하는 것으로, 유럽은 이태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수출시장을 제공하고, 낙후지역 개발자금의 주공급원인 동시에 과잉인력의 수요처

* 다만, EEC의 공동농업정책(CAP)은 지중해제품(오일, 과일, 야채 등)보다 북유럽제품(시리얼, 쇠고기, 유제품 등)에 더 많은 가격 보조를 제공하여, 이태리 농업에 큰 이득이 돌아가지 못함

□ **유럽통합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

* 92년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재정기준(GDP대비)

	공공부채	재정적자
EU 기준	60%	3%
이태리(91년)	102.5%	10.7%
(98년)	116.3%	2.7%

* 96년 출범한 좌파 Prodi 정부의 노력으로 마스트리히트조약 기준을 충족(공공부채는 제외)하고 98년 EMU 창설멤버로 가입함으로써 유럽의 변방국가에서 국제신인도 회복에 성공

· 다만, 영·독·불에 못 미치는 국력으로 EU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EU지침(directives)의 이행도 지연·위반

· 91년 EU의 300개 지침(directives) 중 52개만 입법화(최하위수준)

(3) 이태리와 아랍권 관계

□ 2차대전후 배타주의의 대표적 인물은 Mattei(국영석유회사 ENI의 사장)

o ENI는 모로코 독립과 알제리를 지지하는 준독립적인 대외정책 수행

* 미국 Standard Oil은 ENI가 소련으로부터 값싼 원유를 대량 수입하여 서유럽에 재판매하는 것을 우려, 국무부에 Mattei 통제 요청

→ 미국과 마찰 초래 및 Mattei 사고사(62.10월 Milan 근교 비행기 사고)

□ 소련 붕괴 이후 중동, 발칸반도, 북아프리카 등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이태리로의 보트피플 양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태리 안보의 핵심사항으로 등장

o 또한 에너지의존도가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이태리경제에 필요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아랍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대두

* 이태리의 아랍지역 에너지의존도 : 총원유수입의 69%를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반도에서 수입, 총가스수입의 24%를 알제리에서 수입

□ 이에 따라 이태리는 아랍권 분쟁에 관해 점차 독자 목소리를 내면서 **이슬람세계와 서방세계간의 중재 역할**을 자임

(☞ 목차로)

Ⅲ. 이태리경제의 문제점

◇ 이태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1)Globalization에 따른 중국·동구의 빠른 시장잠식, **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등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2)**정치적 리더쉽 부재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경쟁력 저하와 심각한 경기침체에 봉착

◇ 이태리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과도한 사회보장지출**과 **만성적 재정적자,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유로국가에 공통적인 요인 외에

o 이태리에 특유한 요인으로 **전통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취약성,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의 미약,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정치적 리더쉽 부재와 개혁의 미흡** 등이 지적됨

1. 전통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취약성

□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이 이태리를 세계6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Globalization이 확산되면서 ①**중국·동구의 시장잠식**, ②대기업의 취약으로 인한 **R&D 능력의 미흡**, ③중소가족기업 구조에서 오는 **지배구조의 낙후와 투명성 부족**이 이태리경제의 취약성으로 작용

(1) 이태리 중소기업의 강점

□ 이태리는 문화·역사적 전통과 정부의 정책지원 하에 중소기업이 크게 발전

⇒ 중소기업(종업원 50인 이하)이 전체 기업수의 98%(약 450만개), 총 생산의 75%, 총 수출의 65% 차지

<제조업 규모(고용인원) 주요국가 비교(2001년)>

고용인원	1-19인	20-49인	50-249인	250인 이상	합계
프랑스	18.0	12.7	22.2	47.1	100.0
독일	14.7	7.4	23.1	54.8	100.0
이태리	**40.0**	16.0	20.9	22.8	100.0
영국	17.3	11.7	25.8	45.3	100.0

□ 성공적인 중소기업과 산업클러스터 : "Niche Capitalism"

o 이태리는 금융, 노사관계 및 시장측면에서 미국식 대기업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금융 측면 : 자본시장의 미발달, 장기신용은행의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 미흡, 단기상업은행의 소규모 지역화 등으로 인해 자금공급이 주로 소자본을 요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 노사관계 측면 : 노조의 강한 투쟁성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노조허용 의무가 없는 소기업을 선호(15인 미만 기업은 노조가입의무 면제)

* 시장 측면 : 70년대 경제불안정기에 수요변화가 크고 비표준화된 시장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생산의 고객화(Customization)가 강점으로 작용

o 중소기업 발전의 결과, 볼트, 타일, 안경테, 기어, 자전거 안장 등 niche product에서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확보

o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은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지구인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에 있음(패션, 가구, 엔지니어링 등)

* 고기술 가내공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조직화되어 대기업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면서 대기업이 갖지 못하는 유연성을 확보

* 산업클러스터의 장점 : 1)공통적인 산업환경으로 인해 know-how와 이노베이션의 확산이 용이, 2)특화된 노동력의 형성, 3)모든 필요한 서비스와 보완기업의 존재, 하도급의 활용 가능, 4)구매자에게 가장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공급 가능, 5)상호신뢰로 인한 거래비용의 절감

- 산업클러스터는 특히 북동부·중부지역(NEC)에 집중 형성되었는데 이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 북서부 산업지역을 따라잡게 됨으로써 'Third Italy'로 불리우게 됨

* 97년 NEC의 Emilia-Romagna 지방이 그동안 가장 부유했던 북서부의 Lombardy를 제치고 1인당소득 1위를 차지

<산업클러스터의 분야별·지역별 분포현황>

	섬유·의류	가구	엔지니어링	가죽·신발	식음료	보석·기타	계
북서부	24	6	17	-	6	6	59
북동부	20	18	14	4	7	2	65
중부	19	13	1	18	2	7	60
남부	6	2	-	5	2	-	15
전체	69	39	32	27	17	15	199

< 이태리 중소기업체제의 특징 >

○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

- 이태리는 산업분야별로 중소기업을 묶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각 부문별 클러스터가 하나의 독립체 형태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

  * 정부는 클러스터의 모델을 제시하고 클러스터의 형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형성

  * 클러스터(예): Como 지역의 실크산업, Verona의 신발, Modena의 타일, Vicenza의 귀금속, Biella의 모직산업 등

  * 산업단지(분류기준에 따라 60~200개 내외로 파악)의 경제 기여도 : 90만개의 일자리(전체 일자리의 5.4%) 창출, 제조업 고용인원의 42.5% 고용

○ 대기업은 마케팅전략 수립과 유통망 관리, 중소기업은 품질관리, 제품제조, 기술축적, 숙련공 육성 등 상호분업 및 협력체제가 발달

< 산업클러스터의 기업유형 : Carpi지역 사례 >

o 니트와 의류생산으로 유명한 Carpi 지역은 사업자의 88%(2,319업체)가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10~50명 11%, 50명이상 1%)

o Carpi 지역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기업들이 있음

- 최종기업 : 도매업자(44%), 소매업자(38.5%)에게 제품을 판매

  · 원자재 구매, 하청 작업의 관리, 제품 계획, 예비샘풀의 제작 등을 수행

  · 작업공정 관리방식은, 1)사전에 계획된 제품의 생산기업은 판매시즌이 시작되기 12개월 전에 미리 제품을 계획하고 제품 판매를 준비, 2)주문적기생산방식(JIT)의 기업은 다른 기업의 어떤 모델들이 잘 팔리는지를 알고 있는 도매업자나 수입업자들의 주문에 따라 한달 이내에 제품을 생산

- 하청업체 : 생산과정에서 일부 단계(접합, 절단, 조립, 수놓기 작업, 다림질, 마무리 작업 또는 포장 작업 등)에서만 전문화(종업원은 평균 3명 정도)

- 보완적 기업 : 주요 생산과정의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

  · 컨테이너 생산기업, 컨테이너에 표지, 라벨을 부착하는 기업, 특정기업들이 사용하는 기계 제조 기업, 제품 운송 기업 등

o 특징 : 1)생산단계마다 많은 생산자들이 존재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고 경쟁이 치열, 2)상호 협력이 긴밀(생산수단 또는 원자재 대여, 즉각적인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협조체제, 정보와 지식의 교환 등)

(2) Globalization에 따른 경쟁력 저하

□ 최근 Globalization에 따른 경쟁 심화로 **전통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경쟁력 유지에 **취약성** 노정

o 중국, 동구 등 신흥 저임금국의 급부상으로 그동안 주력 업종이던 섬유의류·신발·가구 등 전통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고, 디자인·마케팅에 기반한 새로운 niche를 개발하지 못한 반면,

- 세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high-tech제품은 기반이 취약

* 그동안 이태리의 섬유산업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WTO 섬유협정에 의해 보호받아 왔으나, 2005.1월 동 협정이 종료

* 과거 물가상승시 리라貨의 주기적인 평가절하로 전통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했으나, 유로화 도입 이후 환율 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불가능(물가상승→실질실효환율 상승→경쟁력저하)

* 이에 따라 최근 EMU를 탈퇴하고 리라貨를 재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 대두(현 연합여당의 하나인 북부리그 소속 노동복지부장관 Roberto Maroni : 2005.6.13)

< 이태리의 유로화 도입의 공과 평가 >

o 유로화 비판론자들은 유로화 도입 이후 1)인플레가 촉발되어 생활수준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2)환율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

o 그러나, 유로화 도입은 이태리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2002년 리라화에서 유로화로의 전환은, 식당 등 일부 상인이 통화전환의 혼란을 이용하여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례 외에는, 일반물가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환율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 진 것은 사실이나, EMU 가입은 이태리 경제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것임
  ・고물가, 재정적자, 평가절하 ⇒ 저물가, 재정건전화, 단일통화

  * 유로 비판론자들은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은 영국의 예를 지적하나, 영국은 고물가, 재정적자, 평가절하의 경제운영을 해 오지 않아 이태리와는 상황이 다름

o 만일 이태리가 리라화를 고수했더라면, 고물가와 평가절하의 지속으로 외환투기가 촉발되고 제2의 아르헨티나와 같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

* 전 재경부장관 Siniscalco: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경제운영이 불가능했을 것"

o 결국 환율조정에 의존하지 않은 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음

- 유로화로 인한 문제는 이태리경제의 미시적 약점을 노출시킨 것에 불과(상품・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경쟁의 미약 등)

* 한편, 역설적으로 유로화 도입은 환율위기의 부재 등에 따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음

o 무한경쟁시대에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 및 효율적 자원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에 취약

* 다른 경쟁국가들은 기업간 M&A를 통해 기업의 규모를 키워 비용을 절감(보다폰과 만네스만의 합병 등)

*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세계 500대기업 중 이태리기업은 12개에 불과(미국 218개, 일본 43개, 영국 41개, 프랑스 28개, 독일 19개)

o 최근 급격한 단위노동비용 상승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 가중

<제조업분야 단위노동비용(95년=10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태리	114.0	100.0	111.9	113.3	119.5	121.2	113.7	115.1	123.5	135.6
독일	92.4	100.0	97.5	92.6	94.8	96.1	93.4	94.5	94.1	97.9
프랑스	100.5	100.0	99.7	94.3	90.5	87.6	82.1	80.7	81.5	85.4

(3) R&D 투자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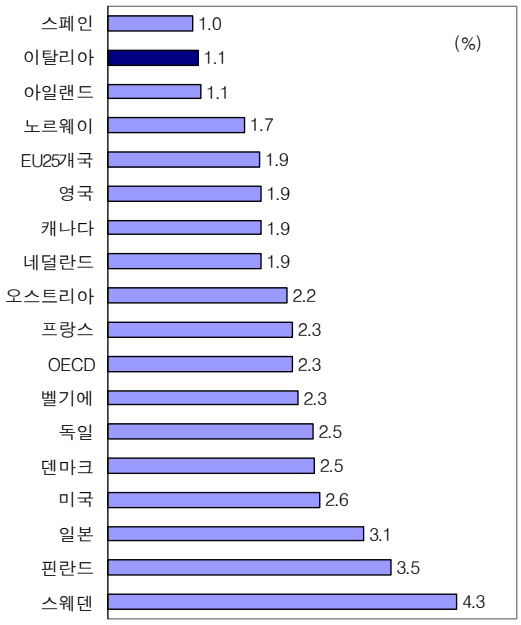
□ 이태리는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어서 기업들의 대규모 **R&D 투자능력이 부족**하고 신기술 및 혁신의 도입이 미흡

o R&D투자 지출이 경쟁국가 대기업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첨단산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산업의 발달**이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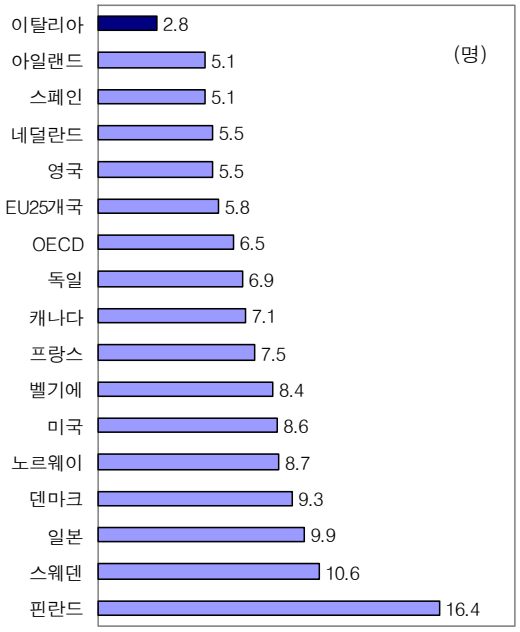
* 이태리의 R&D 투자지출의 대GDP 비율은 1.1%로 경쟁국 독일(2.5%), 프랑스(2.3%)뿐 아니라 OECD평균(2.3%)에도 크게 미달(2003년)

* 종업원 천명당 연구원 수도 OECD평균(6.5명)을 크게 밑도는 2.8명으로 OECD 회원국중 최하위

R&D 투자의 대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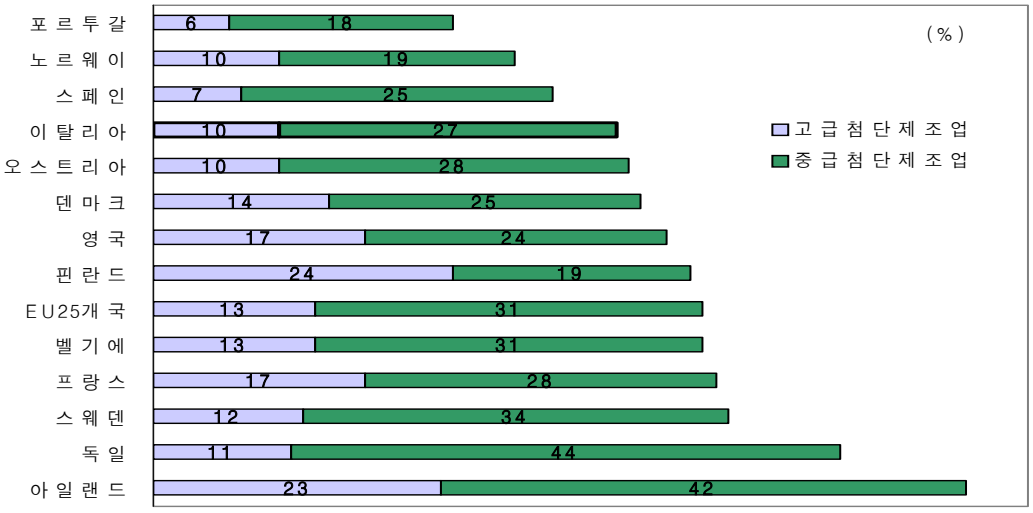
종업원 천명당 연구원 수



주 : 2003년 기준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2004)

□ 또한 R&D 투자가 섬유, 기계장비 등 전통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IT, BT 등 첨단산업 육성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제조업내 첨단 및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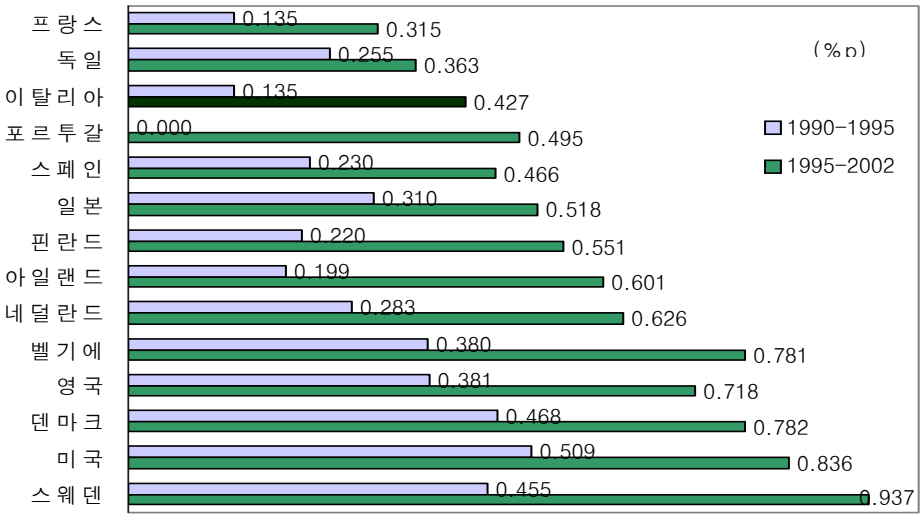
< 첨단 및 지식기반산업의 제조업내 부가가치 비중 >



주) 첨단산업: 항공・컴퓨터・전자통신・제약・과학기자재・전자기계・화학 등(2002년 기준, 벨기에・아일랜드・포르투갈・스웨덴・영국은 2001년)

□ 95~2001년 IT 산업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0.43%p로 OECD 회원국중 최하위권

< IT 산업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



주 :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1995~2002년 기준이며 나머지 국가는 1995~2001년 기준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2004)

(4) 기업지배구조의 낙후 및 투명성 부족

□ 이태리 기업들은 **가족중심**의 경영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시장의 경영감시 기능이 미흡**하고 회계의 투명성이 부족

o 전체기업의 98%인 중소기업은 철저히 가족중심 경영체

o 상장기업(300개 미만)의 경우에도 오너 가족의 지배가 많으며 출자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투명성 부족

- 우리나라 처럼 지배주주가 피라미드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경영권 확보

* 지배주주의 의결지분(control rights)이 현금투입지분(cash flow rights)을 훨씬 초과

o 상장기업은 지배구조 code of conduct에 따라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 지배주주에 의해 선발되어 독립성에 의문

o 회계감사·통제기능도 미약하여 Chief Financial Officer가 내부감사위원회의 멤버인 기업도 있음(Parmalat사)

* 규정상 감사위원회에 소수주주에 의해 선발된 독립인사가 최소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하나, 실제 상장법인의 1/4만이 동 규정 준수

o 이러한 기업의 **투명성 부족**으로 해외투자가의 투자 저조

* 미국의 전체 해외 주식투자중 이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네덜란드 15%, 영국 10%)

*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자본시장 발달과 함께 가야 하는바, 이태리의 경우 비금융기업의 자금조달 중 자본시장을 통하지 않은 은행차입 비중이 32%로 높은 편(미국 16%, 프랑스 24%, 독일 43%)

□ 대표적인 민간 대기업인 **FIAT사** 및 **Parmalat사**가 최근 가족중심 경영으로 인해 경영부실화 및 **회계부정** 사건 초래

* Parmalat사 회계부정 사건

· 이태리의 대표적 다국적 식품회사인 Parmalat사는 가족중심의 폐쇄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외부 회계감사기능 미약으로 2003.12월 약 140억 유로에 달하는 부정회계사건 발생

* FIAT사 구조조정

· 8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최대 민간기업으로 가족중심경영의 대표적 기업인 FIAT사는 2000년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경영위기로 인해 대규모 해고 및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진행중

□ **지하경제**, 정치와 연계된 **조직범죄**(마피아 등), **탈세** 등 사회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부족

* 이태리 지하경제의 규모는 공식적으로는 GDP의 16%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를 크게 상회한다는 평가(영국 1.5%, 독일 4-6%)

* 정부의 조세사면(tax amnesties) 조치의 빈번한 사용은 향후 amnesties에 대한 기대로 조세회피를 야기

< Ecomafia >

o 마피아가 건축과 쓰레기 처리업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고리대금업, 강탈, 불법자금세탁에 연계시키면서 조직범죄, 경제·환경범죄의 융합을 일컫는 "Ecomafia"가 탄생(94년)

o Ecomafia는 98년 불법 건축 및 불법 위험쓰레기 처리 등으로 6.1백만 유로의 수입을 올리고, 1.2백만 유로를 탈세

*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97년 EU Directives에 의거 쓰레기 감소 및 자원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입안하고, 환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

(☞ 목차로)

2.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의 미약

□ 최근 이태리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 하락과 경쟁력 저하의 주 원인은 산업전반에 걸친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의 미약**에 기인

□ 과도한 상품시장규제, 공공섹터의 과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 등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압력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

o OECD가 국가통제의 정도,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무역·투자 장벽 등을 종합 감안하여 산출한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의하면 이태리는 OECD 30개국중 26위로 **최하위 수준**

* 특히 공기업섹터의 범위·규모, 가격통제 등 국가통제의 정도가 28위

* PMR 순위: ①호주 ②영국 ③아이슬랜드 ④미국 ⑤아일랜드
(독일 17위, 한국 19위, 프랑스 23위)

o 공공섹터의 비중이 과다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간섭도 심함

* 공공섹터의 총자산 규모는 GDP의 138% 수준

* 세계 6위의 국영석유회사인 ENI의 최고경영자에 비전문가(Scaroni)를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례는 다수 주주와 외국투자자의 불신을 초래

o 외국인투자에 대한 거부감과 국내기업 보호주의가 팽배

* 2005.7월 이태리 중앙은행 총재 Fazio가 네덜란드 ABN Armo의 이태리 은행(Banca Antonveneta) 인수를 막고 대신 자국 은행 BPI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개입한 사실이 발각

* 중앙은행 독립성을 과보호(총재직을 종신직으로 함)함에 따라 문제를 야기한 Fazio의 해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에따라 법 개정 논의 필요성이 제기(2005.11월)

o 창업규제도 과도하여 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입이 어려움

* 창업비용 : 4,565달러(1인당소득의 24.1%, OECD국가중 25위)
* 창업최저자본 : 9,395달러(1인당 소득의 49.6%, OECD국가중 16위)
* 창업절차수 : 9개(OECD국가중 16위)
* 창업소요일수 : 23일(OECD국가중 11위)

□ 특히, **서비스분야의 경쟁이 미약**하여 비용절감 및 혁신노력이 없고, 결국 높은 서비스가격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

o **전력시장**의 경쟁도입이 미흡하여 전기요금이 EU내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높고 전기 생산능력 확충도 한계에 직면할 전망인 바, 발전과 송전의 구조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이태리 전력시장은 국영기업 ENEL이 지배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EU국가중 최고수준으로 인근국가에 비해 35-40% 높음

* 지방정부가 새 발전소 건립을 막을 수 있는 행정적 진입장벽이 있음

* 이태리 자체의 전력공급 능력은 수요의 60%에 불과한 바, 2003.9월 송전선 고장으로 인한 이태리 전역의 정전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 재개 논의가 진행중

o 철도부문 구조개혁이 진행중이나 아직 국영기업 FS가 화물과 여객시장을 지배하여 경쟁이 미약

* FS의 철도화물시장 점유율은 98%(단거리 여객시장은 99%)

o **금융부문**의 진입규제, 업무감독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은행수수료가 유럽 최고수준

<금융부문 규제완화 정도(OECD순위)>

	국내기업진입	해외기업진입	업무감독	정부소유
프랑스	3위	3위	3위	-
독일	5위	4위	10위	28위[1]
영국	19위	8위	4위	1위
이태리	22위	18위	13위	21위

1) 독일의 경우 KFW라는 국책은행이 동독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소유 비중이 높게 나타남

o 대형소매점에 대한 인허가(진입규제), 원가이하 판매금지 규제

(예) Apulia 지역위원회는 상점 개업 신청에 대해 이미 동 마을에 1개 상점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

o 전문자격서비스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경쟁법 집행 제외 등

(☞ 목차로)

3.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 이태리는 부유한 **북부**(인구:37백만)와 가난한 **남부**(20백만) 지역으로 양분화되어 국가전체의 동질성 확보에 어려움

o 남부지역(Mezzogiorno) 문제는 1880년대 이후부터 정치적인 의제가 되었으나, 특히 과거 개발과정이 남부지역에 "**발전없는 현대화**(modernization without developement)"를 가져 옴에 따라, 남부주민의 북부지역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

- 토지개혁, 공공인프라 프로젝트, 금전적 인센티브제공 등 다양한 정부개입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부에 혜택

  *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북부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

  *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나, 철강·화학 등 중공업중심의 자본집약적 산업은 지방산업 현대화에 맞지 않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입지를 결정하여 경제변동에 취약하고 공장만 산재하게 되는 결과("cathedrals in the desert")

- 70년대 경제위기, 특히 74-5년의 에너지위기는 자원을 북부지역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재건에 우선 투입하게 하여 초기단계에 있었던 남부지역의 산업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함

- 80년대에는 남부지역에 마피아 등 정치와 연계된 조직화된 범죄가 기승

  * 국가도 그들의 대표가 연루된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어려움

  * 결국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상의 비효율, 남부지역의 마피아 연계, 테러(black terrorism) 등이 실패의 요인

o 북부지역의 경우 남부보다는 **세계시장이 더 중요**해졌고, 정부의 남부지역 지원정책은 북부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 남부지역을 부양하는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남부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자기들이 힘들게 벌어 납부한 세금을 탕진한다고 생각

  * 정부가 공공지출을 통해 남부에 과도하게 지원하고 조직화된 범죄문제를 야기하는 등 남부편향적이며, 또한 정부가 정체성 확보, 성장지원, 사회규율의 확립에 무능력하다고 인식

o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지역불만이 표면화된 일련의 사건 발생

- 북부지역 중심 **지역연합**(regional leagues)은 기생적인 남부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시작

  *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기민당정부 및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성이 되었던 기반(anti-communism)이 상실

- 92년 유럽공동시장 탄생은 공공부채를 자각하는 계기

  * 공공지출이 GDP의 10%에 달하고, 부채는 92년 120%로 증가(10년전 60%)

  · 특히 단일통화사용은 환율을 경쟁력을 위해 조절할 수 없게 하고, 정부자금 조달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

- Amato 정부는 92년 남부지역에 대한 공공개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긴축 추진(북부지역의 지지를 얻음)

o 남부지역은 최근 북부지역과의 고용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14.8%의 **고실업률**을 시현(특히 청년실업률 49.1%)

  * 남부지역 고실업의 주요원인은 남부의 임금이 북부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 때문

(☞ 목차로)

4.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

□ 2001.5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승리, Berlusconi가 94년에 이어 재집권

o Berlusconi가 기업경영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경제개혁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감을 다시 반영

  * 중도우파연합(Casa della Liberta)은 전진이태리당(FI; Berlusconi가 당수), 국민연합(AN), 북부리그, 비앙코피오레 등으로 구성

□ 그러나 Berlusconi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본질적인 경제개혁을 못하고, 이태리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

o Berlusconi는 경제개혁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와 자신이 연루된 불법 혐의(부정회계 등)에서 벗어나는데 치중

* Berlusconi는 민영TV방송회사(Mediaset그룹), 출판회사, 광고회사, 소매 아웃렐, 프로축구단(AC Milan) 등을 소유

· Mediaset은 Financial Times 선정 2005년 세계 500대기업(기업가치기준) 중 351위(이태리기업 중 9위)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사례 >

· 선수들의 고액연봉과 TV중계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프로축구단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로 Berlusconi 소유 AC Milan이 가장 큰 혜택

· Berlusconi가 소유한 Mediaset그룹의 3개 채널은 집권 후 더욱 번창하여 국영방송 RAI와 함께 TV방송의 90%를 지배

· 부정회계가 중요한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한 처벌받지 않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켜 Berlusconi의 역외계좌를 통한 부정회계 혐의가 기각

· 과거의 불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게 불법행위의 기소 기한을 단축

o 연합정부에 포함된 각 정당의 이해가 달라 인기없는 개혁추진에 한계

o Berlusconi 자신도 기업인으로서의 성공이 **정치적 혜택**에 기반한 것이어서, 진정한 시장경제 개혁주의자로 보기 어려움

□ 특히, 2005.4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연합여당의 결속 약화와 분열 조짐으로 Berlusconi의 리더쉽이 더욱 약화되면서 경제 개혁이 지연되고 있음

* 파산법 개정법안, 금융기관감독 법률, 전문자격서비스 법안 등 다수의 개혁 입법들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

* 2006.4월 총선에서 전 총리 Prodi가 이끄는 야당(중도좌파연합)의 집권이 유력하나, 야당도 연합내 이해 분열로 개혁 추진에 한계 예상

(☞ 목차로)

5. 주요분야 개혁조치의 미흡

(1) 연금개혁

□ 이태리의 연금지출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GDP의 15.7%(2003년)

o 이중 1/3은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GDP의 5% 수준)

o 연금적자는 매년 400억불 안팎

* 이태리의 강제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8.8%로 유럽내 최고수준 (영국 37.1%, 독일 45.8%, 프랑스 52.9%)

* 이태리는 처음부터 혜택이 많게 만들어진 공공부문 연금수준을 추후 만들어진 민간부문 연금제도가 따라감으로써 연금지출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04년 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수령자격 강화 등의 개혁 실시

o 조기퇴직 억제를 위하여 2008년부터 남자 65세, 여자 60세가 되거나 40년이상 기여금을 납부해야 완전연금(full pens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적어도 57세이고 35년 기여금 납부시 완전연금 수령 가능

o 8%를 적립하여 퇴직시 한꺼번에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 Fund)으로 전환

* 6개월내에 노조나 회사가 운영하는 closed fund나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open fund를 선택 → 선택하지 않을 경우 regional fund로 편입

o 퇴직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도입

* 퇴직연령 이후에는 봉급에서 부담하게 될 기여금 부분(봉급의 32.7%)을 국가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세금도 면제

□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근본적 개혁이 아닌 **대증적 개혁**으로 임시처방에 그쳤다는 평가

o 주기적으로 사회불안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

* 2008년부터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약 70만명 예상)되며 이들이 연금의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

o 스웨덴이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민영화를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인 근본적 개혁을 한 것과 대조적

□ 이태리의 **재정적자**는 2004년 GDP의 3.2%를 기록하여 EU 안정성장협약(SGP) 상의 3% 기준을 초과한 바, 적자규모는 2005년 GDP의 4-4.5%로 더욱 증가할 전망

o 이에 따라 2005.7월 EU의 이태리에 대한 과다재정적자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가 공식 개시되어 이태리가 2007년까지 3% 기준을 충족하도록 2년간의 시정기간을 부여

* 이태리는 SGP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재정적자 시정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 2년 안에 재정적자 수준을 GDP 대비 3% 이하로 줄여야 함

o 2004년 국가부채는 GDP의 107%(EU조약 60% 기준을 크게 상회)

(2) 노동시장개혁

□ 이태리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OECD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

<OECD 주요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구분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EPL* 점수	2.4	1.1	2.9	2.5	0.7	2.0
유연성순위	18위	2위	24위	20위	1위	13위

* OECD는 노동시장유연성을 평가할 때 "해고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를 사용

· EPL 점수는 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의 3개 분야를 해고통지기간, 퇴직위로금 등 18개로 세분하여 각각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얻어지는 수치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2003년 Biagi 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 추진

o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복직을 허용」하도록 한 노동법 제18조 규정을 고용원 15인 미만 기업이 15인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o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 근로계약 인정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용역(staff leasing) 근로계약, 자유근로계약(freelance work) 인정, 보조일자리(supplementary work) 도입 등

o 고용안정서비스의 국가독점을 폐지하고, 고용상담사, 파견기관, 대학, 노·사 단체 등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여 경쟁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질 개선 도모

□ 비정규직 채용 채널이 다양화되고 고용보호조항의 적용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노동시장 개혁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

o 비정규직 활성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 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조항 추가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필요

o 또한 여성 및 고령인력의 고용율 제고, 청년실업 및 남북 고용격차의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이 긴요하다는 지적

* 이태리의 고용율은 56.2%로 유로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2003)

· 영국 72.9%, 독일 64.6%, 프랑스 62.7%, EU15 64.5%(리스본 목표치 70%)

* 특히 여성 고용율이 42.7%, 55-64세 고용율이 30.3%로 OECD 평균(각 55.3%, 50.1%)에 크게 미달

· 여성의 낮은 고용율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 편견, 보육시설 미흡, 출산 및 육아휴가 부족, 세제 미개편(두번째 소득자에 대한 重과세) 등 전반적인 시스템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평가

* 15-24세의 청년실업율이 27.1%로 매우 높고, 특히 남부지역(Mezzogiorno)은 49.1%(북동지역 8.8%, 북서지역 13.6%)

(☞ 목차로)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 이태리는 경제정책, 정치체제, 대외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1) **경제정책** 분야에서 저성장과 고실업, R&D 미흡, 기업지배구조의 낙후, 과도한 정부규제, 지역간 불균형,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과 막대한 재정적자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잘 안 보일만큼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6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niche market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그 중심역할을 담당

- 우리가 추진중인 산업클러스터 전략에 이태리 중소기업의 발전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

(2) **정치체제** 면에서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

① Berlusconi 정권의 행태에 비추어 **재벌이 정권을 담당**하게 될 경우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② 우리의 경우 **지역주의 타파**가 정치개혁의 주요목표가 될 수 있는 바, 그 수단으로서 어떠한 방식을 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이태리의 경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국정당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

· 그 결과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국정당화하는 데는 기여한 반면, 중소정당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다수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여러 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게 추진됨으로써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어렵게 되는 결과

(3) **대외정책**에 있어 이태리는 전후회복과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대미의존**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음

- 소련의 붕괴 이후 이태리가 **지중해, 유럽, 대서양 간의 연계**를 적절히 조합·선택해 옴으로써 medium power로서 그 나름대로의 위상을 찾아 온 과정에 주목할 필요

- 이는 동북아 지역내의 조정역할, 한중일 FTA 등 동북아 통합의 진전, 한미관계의 보다 균형적인 발전 등을 지향하는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에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음

(☞ 목차로)

<참고 1> 이태리경제의 최근동향

1. 개 관

□ 5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이태리경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최근 심각한 경제부진에 봉착

* 2004년 GDP규모 1조6,779억불(영국의 80% 수준), 인구 5,755만명

* 2004년 1인당GDP는 28,800불로 유로평균(30,500불)에 미달(OECD평균수준)

< 주요 경제지표 >

(단위: 십억불)

		2001	2002	2003	2004
GDP	금액	1,469.5	1,491.6	1,520.4	1,677.9
	1인당(US$)	25,377	25,568	26,662	28,800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율(%)	2.8	2.5	2.7	2.2
생산	산업생산증가율(%)	-0.8	-1.4	-0.8	-0.4
실업	실업율(%)	9.1	8.6	8.4	8.0
투자	설비투자 증가율(%)	2.4	-2.3	2.8	1.9
	해외투자	21.8	17.2	9.9	-
	외국인직접투자(FDI)	14.9	14.7	17.3	-
무역	수출(FOB)	244.9	253.7	293.3	338.8
	수입(FOB)	229.4	237.1	283.6	326.6
	무역수지	15.5	16.6	9.7	12.2
	경상수지	-0.7	-9.4	-20.6	-17.4
금융	순 외환보유고(금 제외)	24.4	28.6	30.4	27.5
	금리(국고채 3년 기준)	5.2	5.0	4.2	2.2
	평균환율(달러 대비)	0.90	0.94	1.13	1.23
	종합주가지수(MIBTEL)	22,855	17,485	19,922	23,534

2. 성 장

□ 90년대 이후 이태리의 성장률은 유로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02년 이후 1% 미만의 심각한 **저성장** 상태

<실질 GDP 성장률(%)>

	91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이태리	1.4	3.0	1.0	2.0	1.7	1.7	3.2	1.7	0.4	0.4	1.0
Euro평균	2.5	2.3	1.4	2.4	2.8	2.8	3.7	1.7	0.9	0.6	1.8

o 2002년 이후 **수출증가세 둔화**가 현저한 가운데 투자도 부진

* 90년대 5.8% 증가하던 수출이 -3.2%(2002), 투자도 -1.8%(2003)

o 2005년 들어 경기가 더욱 악화되어 마이너스 성장 시현

* 2005.1/4분기에 GDP 0.5% 감소(특히 수출 4.1% 감소)

* 산업생산도 3.7% 감소한 바, 부문별로는 가죽(-10.3%), 가구(-8.7%), 섬유・의류(-6.3%)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 감소가 큼

□ 1인당 GDP는 76년부터 이태리가 영국을 앞질렀으나, 97년 다시 영국에 추월당하고 2002년부터는 EU평균에도 미달

<1인당 GDP(US달러)>

	70	76	95	96	97	98	99	00	01	02
이태리	3,485	6,041	20,764	21,515	22,100	23,248	23,766	24,682	25,377	25,568
영국	3,623	5,964	19,903	20,930	22,347	23,276	24,014	25,322	26,627	27,948
프랑스	3,775	6,531	20,730	21,381	22,424	23,436	24,235	25,293	26,552	27,217
EU15			19,931	20,687	21,565	22,519	23,315	24,364	25,333	26,019

3. 고 용

□ 이태리의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2000년 10.4%에서 2004년 8.0%로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단기·임시직의 증가에 기인

* 유럽 주요국 실업율('04) : 스페인 10.9%, 프랑스 9.7%, 독일 9.6%, 영국 5.5%

<실업율(%)>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태리	8.5	8.7	10.1	11.0	11.5	11.5	11.6	11.7	11.3	10.4	9.4	9.0	8.6
영국	8.6	9.8	10.0	9.2	8.5	8.0	6.9	6.2	5.9	5.4	5.0	5.1	5.0
프랑스	9.0	9.9	11.1	11.7	11.1	11.6	11.5	11.1	10.5	9.1	8.4	8.9	9.4
EU15	7.9	8.7	10.1	10.5	10.1	10.2	10.0	9.4	8.7	7.8	7.4	7.7	8.1

□ 이태리는 특히 **지역별 고용격차**가 심하여 북부(4.3%)와 중부(6.8%) 산업지역은 실업률이 낮은 반면, 남부지역은 14.8%의 고실업률을 시현

o 특히, 고용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워 남부지역의 청년실업률(15-24세)은 50%에 육박(2003년 49.1%)

* 30-34세 청년인구의 40%가 재정독립이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

4. 수 출

□ 90년대까지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최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전락

o 이태리의 수출은 **비내구성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 가격탄력성이 높고 수출가격도 불안정

< 이태리 및 독일의 수출품 구성 비교 >

(%)

	이태리	독일
중간재	30.1	29.7
자본재	33.2	45.9
비내구성 소비재	24.8	3.7
내구성 소비재	9.7	11.0
에너지	2.2	1.4

o 특히 섬유·의류·가죽제품 등 주요수출품이 **중국** 및 **중·동구국가産** 저가제품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2001년 이후 수출량이 급감

* 이태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991년 5.1%에서 2004년에는 4.1%로 축소(독일 9.3%)

□ **수출지역**이 저성장 추세를 나타내는 독일(13.8%), 프랑스(12.2%) 등 EU 15국(53.3%)에 집중된 반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등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아 수출확대에 한계

< 이태리의 수출지역 비중(2003년, %) >

EU 15국	미국	아시아 4개국	일본	중국	러시아
53.3	8.5	2.7	1.7	1.5	1.5

주) 아시아4개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5. 고령화, 복지 및 재정

□ OECD 평균에 비해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

* 65세이상 인구비중(2000→2020) : 이태리 18.1%→23.5%(OECD평균 13.1%→17.7%), 출산율(이태리) : 2.43명(70년)→1.29명(2003년)

□ 사회보장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비중이 2000년부터 EU평균을 상회

< 사회보장지출의 GDP대비 비중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이태리	23.3	23.5	24.3	24.7	24.4	23.0	23.5	24.2	23.8	24.2	24.1	24.5
EU15	23.4	24.4	25.6	26.5	26.2	25.6	25.6	24.8	24.3	24.2	23.7	24.0

* 이태리는 복지지출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최저생활보장제도가 미비하여 분배의 형평이 상대적으로 취약

* 지니계수: 이태리 34.7(독일 27.7, 프랑스 27.3, 영국 32.6)

□ 재정적자는 '99년부터 축소되어 오다 최근 다시 적자가 확대, 2004년 GDP대비 적자비중이 3.2%로 유로평균을 상회

< 재정적자의 GDP대비 비중 >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이태리	-10.3	-9.3	-7.6	-7.1	-2.7	-3.1	-1.8	-0.7	-2.7	-2.4	-2.5	-3.2
Euro국가	-5.8	-5.1	-5.1	-4.3	-2.6	-2.3	-1.3	0.1	-1.8	-2.5	-2.8	-2.7

6. 국제경쟁력

□ 최근 이태리는 물가상승률이 경쟁국보다 높고 총요소생산성(TFP)이 하락하면서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

* 99~200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이태리 2.4%, 독일 1.4%, 프랑스 1.8%

* 91~2004년 노동시간이 70년대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했으나,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하락 : 2.8(71~80) → 0.5(91~2004)

<생산요소의 성장기여도(%)>

	노동시간	자본	TFP	GDP
1971-1980	-0.5	1.4	2.8	3.6
1981-1990	0.2	0.9	1.2	2.3
1991-2004	0.1	1.1	0.5	1.7

· TFP 저하 ⇨ 단위노동비용 상승 ⇨ 가격경쟁력 저하 ⇨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짐

· 고용증진 못지 않게 생산성제고를 유도하는 정책노력이 중요함을 시사

□ 최근 WEF와 IMD 등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이태리는 유로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로 추락

* WEF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 : 2001년 26위 → 2005년 47위

< IMD의 이태리 경쟁력 평가 >

	01	02	03	04	05
● 종합	33위	34위	41위	51위	53위
● 정부효율성	40위	43위	53위	56위	58위
· (재정정책)					60위
· (기업관련법률)					49위
● 기업효율성	32위	31위	39위	54위	53위
· (효율성)					39위
· (경영관행)					55위
● 인프라스트럭처	27위	29위	34위	37위	36위

· 정부규제 개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매년 정부효율성 순위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 경영관행의 후진성으로 기업효율성 순위도 하락

* 최근 S&P는 이태리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조정(2005.8.8)

(☞ 목차로)

<참고 2> 전후 이태리의 정권변천과정

1. 기민당(DC: Democratic Christians) 중심의 우파연합정권

□ 전통적인 기독교중도우파 기민당이 제1당으로서 장기간 (전후-92 사법부 수사로 기민당 붕괴시까지) 집권

* 83-87년간은 83년 총선시 기민당의 득표율 저하로 연정 파트너의 하나인 사회당의 Craxi가 총리에 취임

□ 제2당은 통상 공산당(PCI: Party Communist Italian)으로 47년 발칸반도 공산화 이후 모든 연정에서 배제

o 적색벨트(red belt) : 볼로냐, 피렌체, 로마, 토리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소위 에밀리아-로마냐주, 투스카니주, 마르쉐주를 연결하는 적색벨트지역에 지지기반

o 소련공산당의 지원에 안주하여 소련의 헝가리・체코침공(68), 아프간 침공(79), 폴란드 군부쿠테타(81)에도 불구, 소련과의 연계를 지속함으로써 국민적 지지기반을 상실

o 91.2월 좌파민주당(PDS: Party Democratic Left)과 재건공산당(RC: Communist Refoundation)으로 분리, PDS는 사민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RC는 극좌공산당 노선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수정당 지지기반 유지

□ 자유당(LP: Liberal Party), 공화당(PRI: Party Republican Italian), 사회당(PSI: Party Socialist Italian), 이태리사회운동당(MSI: Socialist Movement Italian) 등 난립

o MSI는 극우 파시즘 후속정당

o 기민당 중심으로 LP, PRI가 연정에 참여하는 중도우파연정, 또는 PSI가 참여하는 중도좌파연정(62-72)을 구성

o 78년 사회당(PSI)의 Pertini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고, 83년 사회당의 Craxi가 처음으로 수상에 취임(83-87)

2. 중소정당 난립으로 5개정당 연정(Pentapartito : 80-92)

□ 여전히 기민당 중심의 연정체제로 기민당(DC), 자유당(LP), 공화당(PRI), 좌파민주당(PDS), 사회당(PSI)이 모두 참여하는 좌우가 망라된 대연정 형태

o 사회당(PSI)의 Craxi가 수상에 취임함으로써 첫 좌파 수상이 되었으나 제도개선에는 미온적(각기 지분 유지 위한 현상유지 입장)

o 80년대말이 되면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정권구성이 계속 고착화되고 이익집단과의 거래관계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

* 집권세력 자체가 이익집단화 함으로써 반대세력의 모든 공격이 차단 가능하게 되어 보다 노골적인 부정부패가 확산

□ 92.2월 밀라노 사법당국의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개시되어 94년말까지 2,900여명이 체포되고 연정의 중심당인 기민당과 사민당은 해체

o 야당인 북부연합 등 4개당의 대표가 사임하고 94.5월

Berlusconi의 전진이태리당(FI: Forza Italia)의 집권이 가능해지는 계기

□ 한편 비례대표제에 의한 군소정당 난립과 고착화에 대처, 93년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

o 의회선거는 75%를 소선거구로, 25%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o 지방선거

- 시장 : 결선 투표제 채택
- 지방의회 : 비례대표제로 하되 다수당에 보너스 의석 배정

o 이는 비례대표제를 점차 지양하는 쪽으로 국민의 기대가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

3. 전진이태리당(FI)

□ Berlusconi의 정당으로 5개당 연정 붕괴 후 집권

o 전진이태리당과 북부연합이 중도우파의 자유연합(polo della liberta) 결성

o 여기에 중남부지역을 세력기반으로 하는 국민연합(AN: 파시스트 후속 정당)이 가세함으로써 3개당 연합으로 94.5월 정권 창출

* 소선거구제 채택 결과 좌파가 소선거구에서 30% 이상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도성향의 여론을 자극한 바, Berlusconi는 이를 포착하여 지역별 연합 공천(북부에서는 FI, NL 연합, 중남부에서는 FI, AN 연합)방식을 채택하여 승리

□ 그러나 Berlusconi와 FI의 경험부족, 인내부족, 상이한 성격의 정당이 연정에 참여, 사법부와의 대립(Berlusconi의 범죄혐의 때문) 등의 요인으로 북부연합이 탈퇴하면서 Berlusconi 사임(94.12월)

o 7개월 단명으로 끝나고 95.1-96.2월간 과도정권 수립 (비정치인인 Dini가 수상 취임-전 중앙은행총재, Berlusconi의 재무장관)

□ 북부연합(NL: Northern League)은 북부산업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 과거 5개연정 참여정당 및 공산당 계열을 반대하는 계층의 압도적 지지

o 이미 92년 총선에서 롬바르드 연합이란 당명으로 340만표의 확고한 지지 획득 경험

4. 올리브나무 연합(Olive Tree)

□ Berlusconi 실각 후 96년 총선에서 집권한 좌파연정

o 이태리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정권이 등장, 구공산당 인사도 내각에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

□ 북부리그가 북부지역 이해에 치중하고 전진이태리당은 Berlusconi의 보호에만 힘을 쓴 결과 우파가 집권에 실패

□ 결과적으로 과거의 기존정당이 모두 퇴출되고 새로운 모습의 군소정당으로 대체된 결과 초래

* 그러나 올리브나무연합(Olive Tree)쪽의 득표비율은 43.4%에 그치고 야당인 자유연합(polo della liberta)의 득표비율은 54.1%에 달해 여전히 국민적 기대는 중도우파에 있으며, 정권이 중도우파로 언제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98.10 재건공산당(RC)이 예산안에 반대한 이후 사회당 수상 Prodi 실각

o 좌파민주당(PDS: Party Democratic Left)의 D'Alema가 수상에 취임

o 올리브 연정에 중도파인 공화방어연합(UDR: Union of the Defence of the Republic)이 참여함으로써 외연적 확장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색채는 붕괴

- 좌파(PDS), 중도(UDR), 극좌(RC)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정당의 정강정책을 모두 지키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붕괴

5. 전진이태리당 재집권(2001년-현재)

□ 북부연합, 국민연합, 비앙코피오레*와의 4당 연합

* Union of Center and Christian Democrats(중도・기민연합)

□ 전반적으로는 좌파계열(올리브나무연합)과 우파계열(polo della liberta)간에 국민적 선택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는 형태가 된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각 계열내의 정치적 스펙트럼(극좌-좌-중도-우-극우), 지역적 지지기반(북부, 남부, 중부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연정구성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o 현 시스템으로는 이태리가 안고 있는 산적한 제도개혁과제를 담당할 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태리 정치시스템이 과연 재정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

* 중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안정적 다수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적 기대가 옮겨가고 있으나, Berlusconi는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환원주의) 선거법 개정 추진중

* 선거법 개정안 내용: 100%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되 ①일정 득표수에 미달시 의석을 배정하지 않는 사표조항과, ②다수당의 과반수 의석 보장조항으로 비례대표제를 보완

(☞ 목차로)

<참고 3> **이태리의 사회변천 과정**

1. 개 관

□ 이태리는 1945년 **2차대전 종전후 50여년동안 격변**

○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전후~1960년대까지 20년간) 다시 **후기산업사회**(1970~90년대 ; 서비스업중심)로 전환

* 1940년대 노동인구의 50% 농업에 종사 → 1990년대 5%
* 1945년 제조업 비중 33% → 1970년 40% → 1995년 30%
* 전후 서비스업 종사 인구비중 25% → 1990년대말 60%

○ **경제적**으로는 GNP 5배 증가, 1인당 국민소득 4배 증가, G7국가의 일원이 되는 등 번영을 구가

○ 급격한 경제발전은 **사회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수반**

○ 특히 이태리 발전과정에서 **대이주**(the great migration)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

2. 이태리 경제발전 과정

□ 종전이후 이태리는 **서유럽진영**에 포함되고, **번영의 30년**(trente glorieuses : 국제무역 및 경제성장의 황금기)"은 이태리에 **경제기적**을 가져옴

○ **저임금경제**를 기반으로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대이주**(great migration)를 통해 **수출주도 성장의 선순환**(virtuous cycle) 시현

○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등으로 유럽의 산업화가 후퇴하던 시기에는 High-Tech 가내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태리 북서·중부지역의 경제가 번영하여 1970년대, 19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

- 고기술 가내공업은 산업클러스터에 조직화되어 대기업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면서도 대기업이 갖지 못하는 유연성을 확보

* 산업사회에서 Fiat가 이태리의 상징이었다면 후기산업사회는 Benetton이 상징

* "We are very flexible. I managed companies in the USA, in France, in Mexico. But my companies in Emilia Romagna can change a sysem of production, of network sales, in minutes"

3. 대이주(the great migration)

□ 통일이후 이민(emigrant)은 이태리의 특징으로 1871년부터 1920년까지 주로 신세계를 찾아(transoceanic) **1300만명**이 이태리를 떠남

* 이태리 정부는 인구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 1950년대부터는 **대규모 국내이동**이 시작

○ 1953년-73년간 **약 9백만명이 지역간 이동**

- 경제기적의 해인 "1958년-63년간, 1967년-71년(경제회복기) 중 이동이 절정에 달하여 연평균 수백만명이 이동

* 1964-66년간은 전후 경제침체기로 이동이 정체

- 남부농촌에서 북부도시로 **다단계 이동**

* 남부농촌→남부도시, 북부농촌→북부도시

- 단순한 이주보다는 **가족전략 차원**에서 이동

  * 이주대상지의 친적이나 친지를 활용하였으며, 정착하고나서는 가족이나 다른 친지들의 이주를 도와 정착지에서 지역공동체네트워크를 형성

○ 이동의 원인

- 1920년대 파시스트들은 **도시화에 반감을 가지고 농촌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신세계 이민을 제한 → 농촌인구 과잉, 대량실업 초래

  * 1950년대 실업자는 노동가능인구의 10%인 2백만명에 달하였으며, 이후 산업예비군으로 경제기적에 일조

- **1950년대 농지개혁**(Farm Reform)은 생존력이 있다고 판정된 농지에만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농민의 이주를 부추킴

- 1950년대 중반 TV의 대량보급은 **젊은이를 도시로 유혹**

4. 대량이동 이후 이태리 사회의 변화

□ 전반적으로 중간계층이 증가하고 노동계층이 감소. 특히 **중간계층 및 노동계층의 구성면에서 크게 변화**

○ 중간계층의 경우 white-collar를 중심으로 도시중간계층이 증가하고 농촌중간계층인 **자가농**은 급격히 감소

  * 농촌지역 중간계층의 감소가 도시지역 중간계층 증가보다 커 상당한 수의 농촌지역 중산층이 산업프롤레타리아화

○ 노동계층의 경우 **농지노동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산업화시기에 **공장노동자***가 급격히 증가

  * 다만, 후기산업화시기에는 공장노동자가 다시 크게 감소

<주요 사회계급 변천 추이(1901-1991년, %)>

	1901	1936	1951	1971	1991
Upper middle class	2	2	2	3	3
Other middle classes	51	55	57	50	58
• Urban middle classes	14	16	24	33	46
-white-collar classes	3	5	13	20	24
-Artisans	7	6	5	5	6
-Shopkeepers	4	5	6	8	11
• Peasant farmers	35	36	31	12	6
Working classes	47	44	41	47	39
• Farm labourers	24	16	12	6	3
• Factory workers	19	21	23	31	25
• Services	4	6	6	10	11

□ 산업화는 남부농촌의 몰락과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남부도시지역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당시수준 유지

○ 정부에 의해 면허가 부여되는 **소상점(shopkeeper)과 장인(artisan)들은 정치적인 개입으로 증가**

* 기민당(DC)은 농민층의 몰락을 상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의 증가를 유도

○ 남부지방에서 공공서비스 등 공직 중심의 white collar가 증가한 것도 행정적인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한 결과**(administrative economy)

○ 이에 따라 남부는 전후 50여년간 국가전체적인 경제발전 및 현대화를 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발전없는 현대화**(modernization without developement)"의 모습

* 소비수준은 선진국이지만 산업기반이나 여건은 저개발국 수준

□ 노동계층의 **의식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였으나,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쇠퇴

○ 1969년 Hot Autumn 등 사회적 투쟁에 참여하고 정당이나 노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 그러나 70년대초 에너지위기로 인한 **산업화 후퇴, 후기 산업사회 이행과정**에서의 감원 등 **산업구조조정, 소규모 가족기업의 확**산에 따라 영향력이 점차 약화

* 피아트는 1980년대초 50%인력을 감축
* 노조원 12백만명(1970년대)에서 7~8백만명(1990년대)
* 가족기업은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가 가족적분위기로 노조가 조직화되기 어려움

□ 사회의 **중심적인 계층이 형성**되지 못하고 노동계층이나 중산계층 모두 **계층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여 **파편화**됨

○ 계급(계층)간 동질성을 확보하기에 **산업사회의 경험기간이 짧았음**(20여년)

○ 산업화가 대규모공장에, 지역적으로는 북부에 한정되었고, 노조의 극단주의적 경향과 후기산업사회의 가족기업 확산 등도 노동계층 파편화의 요인

*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파업하는 등 노조의 극단주의적 행동은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킴

○ 중산층의 경우 서유럽에서는 인적자본에 기초한 **전문관리계층의 성장**이 있었으나, 이태리는 자영업자, 상점주, 공공관료, 교수 등 중산층이 여전히 전통적인 분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들 간에 **공통된 이해가** 부족

*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에는 원천징수(봉급생활자), 소득신고(자영업자)에 따른 조세부담이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등으로 갈등

□ 국가정체성보다 **지역정체성이 우위**

○ **산업화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국가전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국가(정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일이전의 전통적인 지역정체성이 유지

*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선거를 우선하는 정책운영 시스템의 비효율, 남부지역의 마피아연계, black terrorism 등이 그 요인

□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경제적 격차 등에 의해 양분화**

① 남부지역 문제는 1880년대이후부터 정치적인 의제가 되었으나, 특히 50년간 개발과정이 남부지역에 **발전없는 현대화를 가져 옴에 따라** 북부지역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

- 토지개혁, 공공인프라 프로젝트, 금전적 인센티브제공 등 다양한 정부개입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부에 혜택

*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북부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

* 직접적인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산업화를 촉진하였으나 철강·석유화학등 중공업중심의 자본집약적산업은 지방산업현대화에 맞지 않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입지를 결정하여 경제변동에 취약하고 공장만 산재하게 되는 결과

- 1970년대 경제위기, 특히(1974-5년의 에너지위기)는 자원을 북부지역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재건에 우선 투입하게 하여 초기단계에 있었던 **남부지역의 산업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함**

- 1980년대에는 마피아 등 남부경제에 정치와 연계된 조직화된 범죄가 기승

* 국가도 그들의 대표가 연루된 조직 범죄를 척결하기 어려움

② 북부지역의 경우 남부보다는 **세계시장**이 더 중요해졌고, **정부의 남부지역 지원정책은 북부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 남부지역을 부양하는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남부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자기들이 힘들게 벌어 납부한 세금을 탕진한다고 생각

- 정부가 공공지출을 통해 남부에 과도하게 지원하고, 조직화된 범죄문제를 야기하는 등 남부편향적이라는 인식

- 또한 정부가 정체성 확보, 성장 지원, 사회규율의 확립에 무능력하다고 생각

③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불만이 표면화된 일련의 사건 발생

- 북부지역 중심 **지역연합**(regional leagues)은 기생적인 남부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시작

-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기민당정부 및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성이 되었던 기반(anti-communism)이 상실

- 유럽공동시장 탄생(1992)은 공공부채를 자각하는 계기

* 공공지출이 GDP의 10%에 달하고, 부채는 1992년에 120%로 증가(10년전 60%)

- 특히 단일통화사용은 환율을 경쟁력을 위해 조절할 수 없게 하고, 정부자금 조달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

- Amato 정부는 92년 남부지역에 대한 공공개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긴축 추진(북부지역의 지지를 얻음)

□ 페미니즘 및 가족의 변화

○ 1969년 학생운동 과정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

-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인 학생운동, 노조에서의 종속적인 역할에 분노하면서 전체남성에 대한 비난과 분노로 발전됨

- 여성운동은 해방이 아니라 자유에 촛점

* 자신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과 신체를 컨트롤하는 것에 집중하여 자유로운 피임과 낙태를 요구하고 가족과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비판 → 사회적으로는 학교, 노동시장, 법령분야 등에서 성차별금지를 요구

○ 또한 여성교육과 로맨틱한 감정주의의 성장으로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희석화됨

- 결혼이 늦어지고, 가족은 더욱 더 작은 규모의 핵가족화

* 최초 출산연령 : 25세(1972)→29세(1990)
* 가족 인원수 : 3.6명(1961)→2.8명(1991)

- 교육과 직업에 대한 열망은 부모와 더욱 더 오래 있도록 만들고(남부 지중해 가족), 보육에 대한 의무감을 감소시키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2003년 1.29명)**

○ 효과적인 공공보육시설 부족으로 가족은 공공자원보다 자체자원에 더욱 의존하게 됨

* 젊은 직장 여성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보육을 의존하는 경향

(☞ 목차로)

<참고 4> 이태리의 “깨끗한 손”(Mani pulite)

1. 개요

o “깨끗한 손“(Mani pulite)은 92.2 밀라노지역 불법정치자금 조달 수사를 위한 작전 명칭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후 94년말까지 이태리 정치권의 전반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된 이태리 검찰의 수사를 지칭함.

o 주요정당 및 정치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야정치지도자들의 부패혐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당시 주요정당이었던 기독민주당 및 이태리 사회당이 해체되고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현 수상인 Berlusconi가 94년 정치권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이태리 정치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소 또는 유죄 판결받았던 많은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였으며, 오랜 관행인 이태리 정계의 부패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함.

2. 정치부패사건의 수사경과

o 밀라노시의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 사회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해온 중소기업의 고발로 사회당의 불법정치 자금수사가 개시되어, Di Pietro 검사는 92.2.17 사회당 당원인 Mario Chiesa (부동산 개발업자)를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구속하면서 사회당의 부패혐의가 언론에 공개됨.

- Craxi 당시 사회당 서기장(83-87년 수상역임)은 개인의 부정사건으로 국한하려 했으나, 수사검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수사를 확대하여 사회당뿐만 아니라 기민당까지 수사대상이 됨.
  * 당시 밀라노시장은 Craxi 사회당 서기장의 사위

o 밀라노 지역에서 시작된 정치자금 부정수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당지도자들이 부패혐의로 체포된 하급당원들을 보호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이 검찰에서 지도부의 개입을 실토하여 수사가 크게 확대됨.

- 92.9 사회당의 중견의원이 자살하면서 정치자금의 부정모금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모든 정당에 해당된다는 유서를 남김
- 93.3 국영에너지 회사인 ENI 관련 약 2.5억불 규모의 부정사건이 공개되었으며, 핵심관련자인 ENI 전 사장이 93.7 유치장에서 자살함에 따라 Mafia의 개입설까지 등장

o 94년말까지 정치인, 관료, 기업인 등 약 6000여명이 조사를 받고, 이중 약 2900여명이 부패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대부분의 지도부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패혐의로 기소된 사회당과 기민당은 94년 해체되고, 사회당 Craxi 서기장을 비롯, 89년 설립된 신설정당인 북부연합(Northern League) 서기장 등 당시 4개 정당 서기장이 모두 사임함.

- Craxi 서기장 등은 모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정당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

3. Berlusconi의 등장

o 불법정치자금수사는 일반국민들의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이를 배경으로 당시 언론재벌이었던 Silvio Berlusconi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우파정당을 설립, 94년 총선에 출마함.

- 동 선거에서 Berlusconi가 이끄는 우파 3당연합이 승리, Berlusconi는 94.4 수상에 취임함.
- 그러나 Berlusconi의 정치입문은 자신 및 자신소유의 기업(언론사 등)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o 94.7 Berlusconi 소유의 종합언론사인 Fininvest에 대한 수사 개시로 Berlusconi 총리와 검찰 수사팀간의 충돌이 계속됨.

- 수사를 통해 특별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Di Pietro 검사는 94.12.6 사임하였으며 Berlusconi 수상도 94.12.20 의회의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자진 사퇴함.

o 95년 정치권은 정당 및 선거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치자금 수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이태리 정계에 대한 정치자금수사가 종결됨.

4. 평가

o 2차대전 이후 좌·우파를 대표해 온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이 해체되었으며, 선거소요경비 축소를 위해 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등 선거 및 정당관련 법이 개정됨.

o 그러나, 유난히 더딘 이태리의 재판과정, 시효만료, 불법 정치자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면제법 제정 등으로 주요 핵심정치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함.

- 평소 사치생활로 비난을 받아온 Craxi 사회당 서기장은 유죄판결이 확실해지자 94년 자신이 별장을 소유해온 튜니지아로 탈출하여 99년 사망때까지 사실상 망명 생활을 함

o 정치자금수사로 기존 정치인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을 이용, 정계에 등장한 Berlusconi 자체가 부정부패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기소된 정치인중 상당수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어 불법 정치자금수사가 이태리 정계의 부패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동 수사의 핵심인물로 각광을 받던 Di Pietro 검사는 역공을 받아 94.12 사임한 후 정계에 입문, 96년 좌파정권인 Prodi 정부하에서 각료를 역임한 후 98년 정당을 창당하였으며 현재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중

o 특히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Berlusconi 정부에서 부패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대내외 지적

* Berlusconi는 80년대에 식품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자신의 부패 혐의는 기각되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 국방장관 Previti를 구명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중인 바, 동 법안 통과시 현재 계류중인 부패사건의 88%가 무혐의 처리될 우려

* "Berlusconi는 자기 이익을 위해 모든 정치개혁을 되돌리고 있다"는 평가 (Erik Jones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2005) : 이태리 40위(영국 11위, 독일 16위, 프랑스 18위)

(☞ 목차로)